

***미학적 공간인식에 따른 건축공간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Concept in Architectural Space following the Aesthetic Cognition on Space

이용재* / Lee, Yong-Jae
 윤도근** / Yoon, Do-K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space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which has been changed by the aesthetic cognition on space. The intention of considering architectural space aesthetically is to convert the viewpoint of seeing space as simple physical structure into different viewpoint of regarding 'space' as 'cultural place'. However this does not means to apply aesthetic theory to architectural space.

The aesthetic cognition on space is one of the main subjects of the expression of art from ancient to today, however the appearance of space concept as architectural aesthetics accelerated by G. Semper theory, after the latter half of 19th century. On the standpoint of perpetuity in architecture, the aesthetics of scientific rationalism in modernism based on the reasonable thinking regards the variety of inherent characteristic in architectural space as 'Transferential Space'. On the other hand, in regarding to architectural trend, the nature in architectural space has been considered as 'Existential Space' starting from the conscious construction of environments to help human existence in the existentialism.

The Conclusion logic of follows as belows; first, the concept of space structure in architecture has been exchanged from Enclosed Space to Topological Space. Second,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space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to the Deterministic, Profound, Dissipative, and Recognizable Spa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pression in architecture.

키워드 : 건축공간론, 미학적 인식, 이행적 공간, 실존적 공간

1. 서론

건축의 본질과 중심개념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은 시대나 사회적 상황, 그리고 건축가의 인식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나 시각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더욱이 건축에 대한 논의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과학적 속성에서뿐만 아니라 조형적이고 미학적 측면의 예술적 속성 모두에 관한 종합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어렵다.

이러한 건축의 속성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방법을 갖는 과학적 속성에 비해 예술적 속성은 미에 대한 예술가의 창조적인 직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나 시각의 정의

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에 속한다. 제비(B. Zevi)는 건축미학에 관한 최근의 책들조차도 대체로 경험적이고 현대철학사상과 무관하며, 그 이론적 골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건축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건축의 본질을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¹⁾고 하였다.

오늘날의 건축가는 철학적 자기반성의 시점에 놓여 있으며, 근대 건축이념의 붕괴이후 건축적 문제를 양식이나 기호의 변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철학적 문제로서 자각과 실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²⁾ 실제로 건축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을 조각이나 회화처럼 순전히 조형적 현상의 외적이고 피상적인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단지 인식적 비판방법의 실수라기보다는 철학적 태도의 결여에 따른 잘못된 개념이 된다. 따라서 예술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 명예회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공간으로서의 건축, 최종현, 정영수역, 2판, 세진사, 서울, 1990, pp.13-20

2) Scruton, Roger, The Aesthetic Understanding, 미학의 이해, 김경호, 이강호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p.6

성에 기본을 둔 타 예술과의 차이점을 통해 건축만의 본질적인 성질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기준과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인식적 사고와 과학에 관한 대안적인 상징화로서 건축의 예술성을 해석하려는 태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의 본질적인 성질을 '공간'에 두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미학적 가치에 두어서 그 인식에 따른 건축공간의 개념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건축의 본질과 중심개념을 위한 이론적 해석과 적용이라는 점과 함께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의 타당성에 동일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근원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과 의의를 위해서 연구의 범위는 건축미학으로서의 건축공간개념이 주요 테마로 떠오르게 된 19세기 후반부터 현대건축까지로 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축 공간의 본질에 대한 동일한 판단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건축미에 대한 공간의 효과를 미의 근본에 관해 고찰하는 학문인 '미학'적 인식이라는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 그 방법을 조형예술의 전체 영역에까지 확대시켜서 모든 것을 회화적 가치들로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이라는 것이 건축공간에 미학이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즉, 건축을 하나의 예술로 보고 건축과 예술의 주제 중 하나가 공간임을 밝혀서 공간예술로서의 건축론을 확립하고자 하는 주제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다.³⁾

2. 건축공간미학의 형성

2.1. 예술개념과 미학의 성립

고대와 중세, 근세에 규정된 예술개념에서 실제로 미가 예술의 본질적 성격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부터⁴⁾이며, 이후 미적인 예술의 사고 확립이 이루어져서 예술의 자기목적적 자립성의 사상을 갖는 예술개념이 하나의 미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대에는 테크네(technê), 포이에시스(poiesis), 미메시스라는 예술 개념이 예술의 근대적 구성요소인 기술, 창조, 재현을 나타냈으며,⁵⁾ 중세에는 고대의 예술사상을 학문으로 인식하여 아르스(ars)를

발전시킨 '자유학예(artes liberales)'⁶⁾의 확립을 이루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 자체의 권위 회복을 목적으로 자연 인식의 한 방법으로서 예술을 학문과 같은 높은 위치에 두려왔다.

이렇듯 본격적으로 미를 예술의 본질로 간주한 개념은 16세기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 1750년경까지도 하나의 과도기였으며, 1747년 프랑스의 미학자 바또(C. Batteux)가 『Les beaux arts réduits à un même principe』에서 '예술(beaux arts)'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면서부터 비로써 예술이 미를 본질로 하는 제작행위로 간주되었다고 타타르키에비츠(W. Tatarkiewicz)는 언급하였다.⁷⁾ 그러나 예술의 본질적 개념으로서 미가 간주되었다는 것이 미학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17, 18세기 당시는 코페르니쿠스(N. Copernicus)의 지동설을 케플러(J. Kepler)와 갈릴레이(G. Galilei)가 조직적인 형태로 통합시키고, 뉴턴(I. Newton)이 미적분학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역학으로서의 체계<Principia, 1687>를 갖춘 자연과학의 발흥기였고, 철학분야에서는 자연과학을 신학과 결부시켜 베이컨(F. Bacon)의 경험주의<Novum Organum, 1620>와 데카르트(R. Descartes)의 합리주의, 그리고 라이프니츠(G. W. Leibniz)의 미적분학이라는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人體系의 時代'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학과 철학의 체계적인 진보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미나 예술에 대한 깊은 연구는 거의 없었다.⁸⁾

이후 라이프니츠와 볼프(C. Wolff)를 거치면서 이성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이데아(Idea)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 미나 예술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美學(Aesthetics)이 1750년 철학의 한 분야로서 탄생했다.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이 'Aesthetica', 즉 그리스어 'aisthêtikos'에 어원을 둔 '감성적 인식의 학'으로 미학(美學)을 제안한 것으로, 미학의 독립을 의미하는 미학사상 최초의 대사건이었다. 이로써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의미하는 미학이, 인간의 미적 태도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여 세계의 미적 본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미적 파악으로서의 예술이 내포하는 발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본질과 법칙을 명확히 밝히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Musike)'라는 개념이 속해있다. 그리고 예술의 기본원리로서 모방적 재현을 의미하는 '미메시스'에 의해서 모든 예술이 결합되었다.

6) 마르티아누스 카펠라(M. Capella)에 의해 자유학예는 문법, 수사, 변증법, 산수, 기하, 천문과 음악 등 7가지의 학문을 포괄한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7) 그의 예술개념사 분류는 3기로 나뉜다. 제1기는 BC.5세기에서 AD.16세기까지의 법식에 의한 제작품으로서의 예술개념의 시기, 제2기는 근대예술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과도기, 그리고 제3기는 1750년을 전후한 예술이 미의 산물로서 인식된 현대 변화의 시기로 정의된다. 특히, 바또는 제3기에 공예와 과학과는 준별되는 것으로서 아름다움이라는 형용에 합당한 예술로 회화, 조각, 음악, 시, 무용의 순수예술(fine arts)과 이에 관련된 것으로 건축과 변론술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건축은 예술로서, 그리고 미에 대한 인식의 대상으로서 성립되었다. Tatarkiewicz, Wladyslaw, History of the Concept of Art : from A History of Six Ideas, 예술개념의 역사-테크네에서 아방가르드까지, 김재현 역, 초판, 열화당, 서울, 1986, pp.40-45

8) 井上大祐 建築美論, 임영배, 신태양 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서울, 1994, pp.60-63

9) 그는 미학을 자유예술의 이론, 저급한 인식의 형이상학, 아름다운 사색의 기술, 擬(以)眞의 기술로 정의하면서, 특히 볼프의 지식철학(Verstandesphilosophie)에서 규정할 고급인식 능력인 논리적 완전성으로서의 '지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저급인식 능력인 감성적 완전성으로서의 '미'로 정의하였다

3) 아버크롬비(S. Abercrombie)에 따르면 건축을 해석하는 것에는 논리적 과정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의 미학과 건물에 속한 다른 요소들을 구별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건축에 대한 평가가 임의적이기 쉽기 때문에, 건축예술은 분석 과정을 피해서 오히려 신비로운 요소를 지닌 주제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bercrombie, Stanley, Architecture as Art : an Esthetic Analysis, 건축예술론, 최종현, 신형준 역, 초판, 세진사, 서울, 1988, pp.165-171 참고

4) 渡邊 護, 예술학, 이병용 역, 초판, 현대미술사, 서울, 1994, p.35

5) 그리스어인 '테크네(technê)'는 기술과 예술을 함께 뜻하는 라틴어 아르스(ars)의 번역어로서, 현재의 예술 개념에 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넓은 의미로 craft라는 '기술 일반'을 뜻하는 말이 테크네인 것에 비해 '포이에시스(poiesis)'는 시를 의미하는 포에시스(poësis)의 원어로서, 현재의 예술 개념이 가지는 '창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음악, 시, 무용을 포함하는 '부시케

그러나 현대적 시점에서 바움가르텐의 미학은 상상과 감정에 관련된 근대적 의미의 미학이라기보다는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의 기초학(Logica)으로서 미를 탐구하려는 저급한 인식의 일종으로 해석¹⁰⁾되며, 그가 미나 진리는 본래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당시의 궁극적 미가 과학적 진리와 일치한다는 질충적이고 회망적인 미학의 주류인 理性主義 美學의 범주를 초월한 것은 아니었다.¹¹⁾

2.2. 미학의 공간론적 인식

미와 예술의 지각에 대해서 그 객관성을 부여하려는 이러한 상황은 지각이 일종의 인식적 작업이라는 기반에 따라 17, 18세기의 미학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 이래로 미는 최고가치인 善, 神, 眞理에 종속된 가치 영역으로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예술가조차도 종속된 가치로 해석되었다. 미에 대한 이러한 근세의 종속된 가치영역에 대해 비판주의적 입장을 제시한 사람은 칸트(I. Kant)로서, 1790년의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은 미학 사상 최대의 업적을 이루었다.¹²⁾ 그것은 미에 대한 판단력이 단순히 선과 악의 비교능력이 아닌 과학적 진위를 비판하는 능력임을 증명한 것이며, 미와 진, 미와 선이 서로 각기 다른 독립된 별개의 가치영역을 형성하여 학문으로서의 미학과 예술로의 기초를 확립시키는 藝術의 自律性을 입증한 것이다. 코헨(H. Cohen)은 칸트의 미학에 대해서 바움가르텐에 의해 명명된 미학을 철학적 체계로 확립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그의 선험적 직관(intuition)의 철학과 미에 대한 정의 속에 매우 기본적인 공간개념을 자신의 미학적인 지각의 의미로 적용하지는 못했다.¹³⁾

10) 니벨(A. Nivel)은 바움가르텐의 미학이 이성주의적 관점으로 고대의 전통에 따르기 때문에, 결국 조형예술이나 자연의 미로부터 이끌어 낸 예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당시 독일의 예술관에는 뵐켈만(J. J. Winkelmann)과 바움가르텐에 의한 두 경향이 있었는데, 페터스(H. G. Peters)에 따르면,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범주의 적용에 따라 내부의 생명력에 해당하는 유기적인 것을 새로운 범주로 도입하는 혁명적인 혁신을 이룬 뵐켈만에 비해, 바움가르텐은 기계주의적인 계몽주의 철학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비평하였다. Kultermann, Udo, Kleine Geschichte der Kunsttheor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예술이론의 역사, 김문환 역,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1997, p.109

11) 미가 일종의 인식적 활동이라는 데카르트에서 바움가르텐에 이르는 17, 18세기의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전통은, 1909년 크로체(B. Croce)의 <Aesthetic>에서 데카르트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전된 수학적 정신이 문예나 미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시인 부알로(N. Boileau)는 진리이외의 미는 없다는 단적인 말로 예술에서의 이성의 의의를 강조했으며, 미가 심적인 작용과 결부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취미론적 미적 태도를 취한 영국의 샤프트베리(A. A. C. Shaftesbury)는 자기 마음속에서 도의와 신을 직관하는 내감각에 따라서 최고의 미는 신의 미로 정의하여 조화적이고 균제적인 미로 감각에 의한다는 경우와 버클리(G. Berkeley)는 미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이성의 대상이라고 정의하면서 당시의 이성주의 미학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井上充夫, Op. Cit., pp.84-85 참고

12) Ibid., p.97

13) 미를 자유로운 미(pulchritudo vaga, 순수미)와 종속적인 미(pulchritudo adhaerens, 응용미)로 구분한 칸트는, 자유로운 미만이 참다운 미인 것과 같이 순수한 형식만이 예술의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술을 위한 예술'만이 참다운 예술이라는 지나친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

칸트의 미학이론에 공간개념을 도입한 것은 헤겔(G. W. F. Hegel)¹⁴⁾로서, 그의 미학논리에 따르면 예술은 이념의 감각적 표현이며, 형이상학적 내용의 표면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정신(spirit)'의 표현을 상위단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헤겔의 미학이 정신의 집중체인 공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겔은 비록 가장 낮은 상징적 단계의 예술로 건축을 정했지만¹⁵⁾, 비물질적인 건축발전의 마지막 절정의 단계에는 고딕 대성당에서 표현된 '절대적 정신'의 구현, 즉 신의 내실인 영혼개념이 존재하는 내부공간에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내부공간이 공간적 관계 속에서 포용하는 본질적인 정신의 집중이며, 결국 가장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헤겔의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은 근대의 예술적 사고에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건축내부의 내용, 즉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형태를 해석한 20세기 건축미학의 근원이 되었다.¹⁶⁾

2.3. 건축미학으로서의 공간개념

공간개념은 건축에 있어 원시시대 이래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된 개념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단순 쉼터로서의 구석기시대 동굴이나 나무 밑, 그리고 구축적(tectonic)으로 의도된 쉼터로서의 신석기시대 고인돌과 거석에서부터 로지에(M. A. Laugier)의 '원시 오두막(primitive hut)'¹⁷⁾이나 기디온(S. Giedion)의 제 1공간개념을 비롯한 로마에서 중세, 바로크 건축으로 이어지는 중심성을 갖는 내부공간으로서의 제 2공간개념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중심개념이었다.

그러나 건축미학으로서 공간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헤겔미학의 논리적인 진보로서의 유물론적인 실천미학을 주장한 켐퍼(G. Semper)에서부터이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건축공간론을 중심으로 한 건축미학이 전개되었다. 1860-63년에 발간된 『서론(Prolegomena)』을 비롯하여 19세기 후반 당시 공간개념을 건축미학의 총합체로 제시한 유일한 건축가인 켐퍼로부터, 1893년 미학적 개념으로서 동적시각(kinetic vision)을 통해 건축이 본질적으로 공간을 통한 인간의 운동임을 주장한 힐데브란트(A.

독일의 과학적 미학의 아버지라고 평해지면서도, 결국 그의 미학은 내용이 결여된 형식주의 미학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14) Van de Ven, Cornelis,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8, p.55

15) 예술에 대한 헤겔의 분류는 내용의 표현, 즉 정신의 표현을 추구하면 할수록 물질적인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 높은 단계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정신개념에 대한 발전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장 물질적인 수단의 건축은 가장 낮은 상징적 단계의 예술이며, 조각, 회화, 음악에 이어 가장 비물질적인 시가 가장 높은 절정에 달하는 낭만적 단계의 예술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16) 헤겔의 정신에 대한 공간구현이라는 미학은 1917년 이후 데 스틸의 공간개념에 의해 예술적으로 구체화되었다. 몬드리안(P. Mondrian)을 중심으로 시각적 형태의 비물질화로서의 공간을 표현하려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신 구현의 시도가 그 예이다. Van de Ven, Cornelis, Op. Cit., pp.55-57

17) 진흙 벽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당시의 건축계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20세기 근대건축 운동에까지 이어진다. 벽의 부정이라는 것은 근대건축의 공간에 변화를 준 기본 테마 중의 하나로서, 그런 의미에서 로지에는 근대건축을 탄생시킨 사람으로 평가된다. Kuma Kengo, 건축의 흐름, 이창우, 이영 편역, 초판, 현대건축사, 서울, 1998, p.60 참고

Hilderbrand)나 건축예술이 '공간의 창조자(Raumgestalterin)'라고 정의한 슈말소(A. Schmarsow) 이후, 모든 예술의지(Kunstwollen)의 목적이 공간임을 1901년 주장한 리글(A. Riegl)에 이르면 공간개념이 과거 모든 역사시대에 통용되는 예술적 개념으로서 본격화되어 건축미학에서 공간성의 효과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브링크만(A. E. Brinckmann)의 공간과 배스의 결합을 통한 미학이나, 쇠르겔(H. Sörgel)의 효과적 공간과 공간예술로서의 건축미학, 그리고 제 3세대 건축이론가로 1921년 최초로 시공간 연속개념을 건축미학에 표현한 쥬커(P. Zucker)나 근대건축의 공간적 특색을 처음으로 논한 기디온의 입체파나 미래파, 데 스틸 미학인 시공 연속체(space-time continuum)개념을 통한 건축공간개념의 정의는 綜合藝術에서 공간에 대한 건축의 미학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¹⁸⁾

3. 미학의 분류양상과 건축공간미학의 인식전환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개념의 분류와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의미하는 미학 자체에 대한 분류과정이 필요하다. 미학사가인 산타야나(G. Santayana)는 미학을 감각미학, 형식미학, 상징미학으로 분류¹⁹⁾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의 미학적 측면에 따른 예술적 속성이라는 서론에서의 기술을 통해서 볼 때 예술적 속성이 미에 대한 예술가의 매우 주관적이며 흥미로운 내관적 분석에 따른 감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호한 해석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학에 대한 건축적 적용을 위해서 감각미학적 접근은 제외시킨다. 또한 건축 철학적인 용어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미학을 환경-행태의 기본적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3.1. 미학의 분류와 근·현대미학의 양상

랭(Jon Lang)은 이러한 관점에 따라 미학의 영역을 형식미학과 상징미학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형식미학은 자체의 목적을 위한 환경의 형상과 구조에 대한 감상을 논하는 일종의 지각적 편안함으로서, 게슈탈트 지각이론에 기초한 실증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상징미학은 즐거움을 주는 환경 패턴에 대한 상징적이고 연상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분야로서, 동일성 욕구의 충족을 위해 행태 과학적 접근을 한다. 즉, 미적형식 및 구성원리와 관계된 형식미학은 인간의 지각적 측면과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으며, 건축 형태의 의미, 상징성 등과 관계된 상징미학은 인지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미적 대상에 대한 근대미학의 분류 양상은 피들러, 헤르바르트, 칩머만, 차이징 등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측

면을 고찰하는 '형식미학'과 헤겔, 셸링, 짐멜, 립스 등으로 대표되는 내용적 측면을 고찰하는 '내용미학'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 현대 미학의 양상은 하르트만이나 수리오, 뒤프렌, 하이데거, 카인츠, 파노프스키 등이 미적 대상을 존재양식이나 작품구조의 측면에서 현상적 존재론적으로 고찰하는 '상징미학'의 경향이 지배적이다. 하르트만은 예술작품의 구조를 그 존재 양태에 따라 '실재적인 전경'과 '비실재적인 후경'이라는 층구조로 파악하였으며, 수리오는 예술작품을 '물질적', '현상적', '사물적', 그리고 '초월적'인 각층간의 상호적 관계로 파악했다. 특히 현대미학에서 철학적 미학으로서의 주요 연구방법에 따른 존재론적 미학은 미적 대상의 구조나 존재성격을 분석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설(E. Husserl)의 '상상 자체에로(Zu den Sachen)'라는 현상학과 형태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론이나 실존주의와 연결되어 실존주의적 현상학 또는 존재론적 실존주의라는 혼합된 철학적 미학이 생겨나게 되었다.²⁰⁾

이와 같이 근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미학의 양상이 현대로 오면서 미적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된 경험적 특수성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회적 존재나 인간생활에 대하여 미적 의식 및 예술의 관계를 실존주의적 현상학에 근거한 존재론으로 고찰하여 미와 예술의 본질과 법칙을 파악하려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3.2. 인식구조(paradigm)와 미의식 체계의 변화

미학의 변화양상에는 산업혁명 이후 발달된 기술과 과학에 따른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라는 전환기적 상황의 시기에도 기인되며, 이러한 변화는 문화가 갖는 고유한 전통과 특성이라는 하나의 문법 또는 전형인 認識構造(paradigm)²¹⁾가 변화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술과 과학의 패러다임은 절대적인 구조에서 상대적이고 혁신적인 구조로 변화했다. 이 시기의 철학사조는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의 진보에 전적으로 유용하다는 실증주의와 베르그송(H. Bergson)의 생 철학, 관념철학으로 당시 예술의 이념적 근거가 된다. 여기에 다윈(C. Darwin)의 환경에 대한 유기체적 진화론과 하이젠베르크(Heigenberg)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한 사건 개념이 연계되면서 절대적 입장에서 상대적 입장으로 이행되었고, 더욱이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의 발명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뉴턴의 절대론적인 고전물리학의 전통적 관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사회구조와 균형에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예술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켰다. 과학의 혁명은 근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지적인 변화였으므로 인간의 자기표현 방식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모

20)Beardsley, Monroe C., Aesthetica, 미학, 이상훈, 안원혁 역, 초판, 이론과 실천, 서울, 1987, pp.434-443

21)Paradigm은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론전개 방법을 좌우하는 초이론 개념으로, 현재 미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및 물리학 등에서 공유하는 이론체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회전반의 가치기준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 조형 역, 2판, 이화여대출판부, 서울, 1994, pp.10-12

18)이용재, 윤도근, 근대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지 14호, 1998.3, pp.118-119 재인용

19)Lang, Jon,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건축이론의 창조, 조희희, 김경준 역, 초판, 도서출판국재, 서울, 1991, pp.271-272

든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인식구조,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건축을 비롯한 예술에서도 美意識 體系에 따른 미학적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하였다.²²⁾

3.3.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의 전환

근·현대미학의 변화나 패러다임과 미의식 체계의 변화양상에 따라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도 현대로 오면서 많은 전환의 과정을 보였다. 근대건축은 건축의 아름다움을 효용성과 견실함의 성취, 즉 기능과 구조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유지해 왔지만, 상징미학에 따른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능으로서만 적용되던 건축의 효용성 개념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물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된다.

이 점을 포토게쉬(P. Portoghesi)는 근대건축에서 그 상징적 가치들은 제거되고 그것이 물질 그 자체의 가치로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며, 현대에는 효용성의 개념을 용도 뿐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이 수용, 사회에의 기여 등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²³⁾ 또한 쉼마(schema), 이미지, 心像, 기억, 인지, 행태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근대건축의 기능적 공간에서 무시된 인간을 건축의 중심적 주체로 설정하여 인간행태로서의 건축을 제시하였다. 근대건축의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유기적 평면의 자유롭게 흐르는 유동적 공간, 개방공간 등을 기다운이 시공간 개념으로 새롭게 설명하였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각적 차원이 무시된 보편적, 추상적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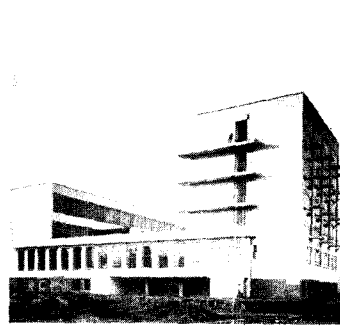
건축공간에 대한 재검토의 근본적 관점은 인간을 내면에서 보려는 실존철학에 있으며, 이것이 후설의 현상학에 이어지는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사르트르(J. P. Sartre)의 실존주의에 따른 존재론적 실존주의 미학의 주관적 공간에 연결된다.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진리관에 따른 불안의 철학인 '살아있는 공간'이나 中井正一의 '미학적 공간'은²⁴⁾ 주관적 실재의 객관적 표출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현대건축공간에 대한 인식과정은 인간존재의 시점을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의식에 기본을 둔 '미' 그 자체의 인식에서부터, 즉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실존적 공간에 두어 미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4. 미학적 공간인식에 따른 건축공간개념의 변화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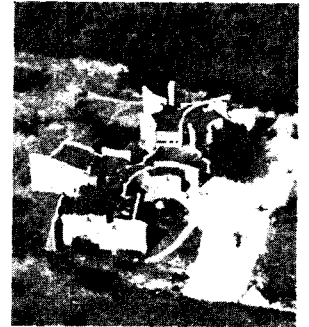
4.1. 근·현대건축공간의 특성정의와 개념분류

건축이 본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일관적인 속성, 즉 건축이 내포하는 恒常性(identity)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대적 건축공간의

특성은 이동하는 관찰자의 다중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의 다면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투명성과 동시성이 표현된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인 상호관입이라는 시공간개념이 도출된다. 즉,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전개되는 '移行的 空間'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한 초기적 건축은 뉘스우에 있는 그로피우스(W. Gropius)의 Bauhaus교사(1926)로, 종합예술(Gesamtkunstwerk)적 개념으로서 건축과 예술분야의 상관성을 명확하여 건축공간미학의 체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서 현대적 건축공간의 특성은 공간에서 관찰자 존재에 대한 실존적 논리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영역성과 장소성이 중심축과 방향으로 표현되는 층상공간의 확산적 개념이 도출된다. 즉, 공간의 환경적 구조에 따라 전개되는 '實在的 空間'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에 대한 초기적 건축으로 포토게쉬와 지글리오티(V. Gigliotti)의 Casa Andrei Scandriglio(1965-66)를 들 수 있다.



<그림 1> W. Gropius, Dessau Bauhaus 교사, 1926



<그림 2> P. Portoghesi & V. Gigliotti, Casa Andrei Scandriglio, 1965-66

근대와 현대의 건축공간에 대한 개념은 미학적 인식과 공간의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시대나 건축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건축에서 공간의 미학적인 해석은 물리적 공간의 세 가지 개념 즉, 장소로서의 공간, 3차원 공간인 절대적 공간개념, 시공간의 상대적 공간개념에 따르기도 하며, 리시츠키(E. Lissitzky)의 분류처럼 평면 측정적 공간(2차원적 공간)과 일점 투시도 공간(3차원적 공간), 비합리적 공간(4차원적 공간), 그리고 영상적 공간(상상적 공간)이라는 4가지 분류의 조합에 따르기도 한다.²⁵⁾ 그리고 노베르그-슐츠의 5가지 기본개념으로 분류²⁶⁾되기도 한다. 인간을 자연적이며 유기적인 환경과 통합시키려는 실용적(pragmatic) 공간, 개인적 定位에 해당되는 자기중심적이며 연속적인 변화의 지각적(perceptual) 공간, 인간과 환경과의 안정된 3차원적 체계의 공간 쉼마(space schemata)에 관련된 실존적(existential) 공간, 물리적 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공간인 인식적(cognitive) 공간, 그리고 순수한 논리적 관계로서 파악되는 추상적(abstract) 공간이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의 세계상으로 표현된 창조된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적(expressive) 또는 예술

22)이용재, 윤도근, 미의식 체계 변화에 따른 건축의 기계미 표현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109호, 1997.11 pp.32-33 재인용

23)김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초판, 미건사, 서울, 1997, pp.58-60

24)宮川英一, 建築的 空間, 문석창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6, pp.93-94

25)Van de Ven, Cornelis, Op. Cit., pp.304-314

26)Norberg 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4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4, pp.13-14

적(artistic) 공간이 추가된다. 따라서 인식적 공간과 같이 표현적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보다 추상적인 구성, 즉 예술적 공간의 특성을 체계화할 수 있는 공간개념으로서 '미학적 공간(aesthetic space)'을 들어 건축공간을 이론화시켜주는 실존적 공간을 정의했다.

4.2. 건축공간구조의 변화양상

공간구성의 원리에 있어 합리와 기능에 대한 함축된 과학적 접근 방법을 보인 근대건축의 공간구조는 형이상학적 속성보다는 물리적인 기능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분석적, 합리적, 논리적인 실증주의적 형식미학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인간의 행태가 건축가의 개념적 설정에 따른 행태 패턴에 의해 전개된다는 결정론적 관점의 미학적 인식에 따라 근대건축공간의 구조는 인간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는 한정된 내부의 공허(void)한 부분인 '圍繞的 空間構造(enclosed space structure)'로 정의된다. 건축의 본질적 주제와 표현 대상을 공간과 그 형식에 둔 근대건축공간은 그 미학적 인식의 속성에 따라 융통적이며 균질성 있는 등방적인 공간구성과 함께 자유롭게 흐르는 평면의 개방된 공간구성을 갖는다. 라이트(F. L. Wright)를 비롯하여 제비는 근대건축공간을 위요된 공간구조로서 파악했으며²⁷⁾, 브로이어(M. Breuer)를 위시하여 특히, 꼬르뷔지에(Le Corbusier)는 살기 위한 기계로 정의하였듯이 최소한의 실질적 비움을 담은 공간구조로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지각적 차원과 유리되어 보편적, 추상적인 극단성을 갖는 근대건축 공간구조가 현대에는 '位相的 空間構造(topological space structure)'로 변화된다. 현대의 존재론적 실존주의 미학의 인식을 바탕으로 노베르그-슐츠(C. Norberg-Schulz)는 인간 활동의 定位에 대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위상적인 層構造가 형성²⁸⁾되어 있어서, 건축공간은 체험의 주제인 인간을 의식하고 접근하려는 심리학적 인지-행태지각 미학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교감적, 위상적, 행태적 공간 등 공간 경험에 관한 다차원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공간개념과 장소적 성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사교의 공간구조가 형성된다. 실존적 공간으로 정의되는 위상적 구조의 공간은 중심성과 장소성, 방향성과 통로, 그리고 영역성이라는 정위의 기본적인 공간구성 체계로서 인간행위의 실존성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기억 등을 바탕으로 하여 공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한정하려는 인간환경의 場으로서 매개적이고 사회 접촉적인 위상적 구조의 공간이 현대건축공간의 특징으로 대두되었다.

4.3. 건축공간개념의 변화양상

건축공간의 특성정의와 개념의 분류, 그리고 구조의 변화양상을 통해서,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건축공간개념의 변화양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決定論的 空間概念

자연의 인과적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표현되는 절대적이며 기능적 공간이나 과학의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시각의 가역성을 갖는 기계주의적 공간개념을 의미한다. 공간 내에서 시간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공간의 방향성이 전개되는 시공간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간이 개방되고 융통성 있는 균일한 성격을 가지며 공간의 상호관입이 가능한 투명성의 특성을 보이는 공간개념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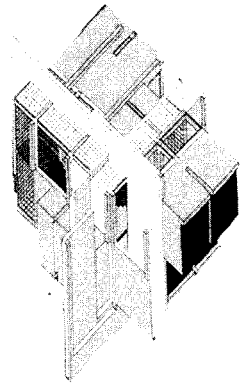


<그림 3> A. Loos, Steiner House, 1910

근대의 과학적 이성주의 미학에 근거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공간을 표현하는 근대건축가의 작품에서 주로 표현되는 공간개념으로,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로스(A. Loos)나 꼬르뷔지에와 같은 건축가에 의해서 보이는 근대건축의 전형적 공간개념이다.

(2) 深層的 空間概念

공간을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공간의 형식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특성을 중시하여 심층적인 의미의 추상적이고 개념화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공간개념을 의미한다. 공간 속에 심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유추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장소성과 관련되며, 공간형식의 질서 체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공간의 구심성을 표현한다. 때로 형식주의적 심미주의로도 해석되는 건축적 통사 개념에 바탕을 둔 기하학적 공간의 추상적이고 개념화된 공간구조에 대하여 대각선상의 공간, 선과 면의 회전과 역전된 공간형태, 층화된 공간 등의 통사론적 요소들이 표상된 탈 기능적 <그림 4> P. Eisenman, House VI, 1972-75 건축공간개념이다.



<그림 4> P. Eisenman, House VI, 1972-75

투명성으로 인한 공간의 위요감 보다는 공간과 빛을 통한 미적으로 상세하고 개념적 공간의 표현한 미스(Mies van der Rohe)의 건축공간이나 주택시리즈의 아이젠만(P. Eisenman)의 통사론적 접근 방식, 절제된 기하형태를 통한 장소의 의미를 재생시키고 있는 로시(A. Rossi)나 웅거스(O. M. Ungers), 크리에(Krier)형제와 같은 건축 작품에서 표현된 공간개념이다.

(3) 散逸的 空間概念

완전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려는 다의적 미학의 의미로 가장 순수한 기하학적 추상공간을 복잡하게, 즉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연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계속하며, 결정론적인 방향보다는 비결정론적인 방향의 비선형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따른다. 따라서 비평

27)Zevi, Bruno, Op. Cit., pp.22-23

28)Norberg-Schulz, Christian, Op. Cit., pp.49-50

형상(카오스)에서 질서로 향하는 역방향성의 새로운 공간개념이며, 무작위적 과정에 의해 얻어지는 산일적 공간(29), 복잡성 속에서도 유사성과 반복, 일관성을 취하면서 미적 질서를 표현하는 공간의 자기 조직화 과정을 보인다.

하디드(Z. Hadid)나 리베스킨트(D. Libeskind), 게리(F. O. Gehry)와 같은 해체건축에서 보이는 건축 공간에서부터 어긋남의 수법이나 축선회전 등의 기하학 공간형태로부터 해체해 간다는 마이어(R. Meier)나 홀라인(H. Hollein)의 건축 공간이 포함된다.

(4) 認知的 空間概念

존재론적 미학을 배경으로 건축가의 주관적 정서나 관념을 배제한, 사물의 존재 그대로 나타내려는 공간이나 공간의 탈허상화 모색을 목적으로 외부로의 확산에 관심을 둔 환경과의 관계로서 인식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동심원적 환경적 층구조로 확장된 공간표현이나 스케일이나 비례의 파장된 지각, 공간의 특수한 분위기 조성 및 미니멀리즘적 공간의 표현,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 환경화하려는 공간개념으로, 관찰자 스스로 환경적 공간을 지각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 공간을 통해 시각적 위치, 장소성을 표현한다.

Zumthor)나 무오라(E. S. Moura) 등은 풍토적 건축이 가지는 장소적 특성을 교감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거나, 라 로차(P. M. La Locha)와 같이 무질서에 대한 반작용으로 넓게 트여진 대지에 매개적 공간만을 위한 환경 속의 건축을 지향하는 작품이 이 공간개념에 해당하며, 포토게시나 헤르츠베르그(H. Hertzberger), 안도(T. Ando) 등의 작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공간개념이다.

5. 결론

건축의 본질과 중심개념이 공간과 그 형식의 구현에 있다는 해석은 건축 패러다임과 미의식 체계의 변화에 따른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로서 진행된 이상의 연구를



<그림 5> Z. Hadid, The World, 1983



<그림 6> E. S. Moura, BOM JESUS House, 1994

29)산일적 공간과 구조에 대해서는 杉本俊多, 건축의 현대사상, 최재석 역, 초판, 발언, 서울, 1998, pp.179-199의 5. 네오픽처레스크를 참고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미학의 공간적 인식은 고대 이래로 예술표현의 주제적 개념이었지만, 공간개념이 미학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헤겔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건축미학으로서의 건축공간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쾰퍼 이후 19세기 후반에서야 본격화되었다.

둘째,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의 방법으로는 형식미학과 상징미학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각기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에 이성주의적 미학과 실존주의적 미학으로 적용되었다.

셋째, 건축이 내포하는 항상성의 측면에서 건축공간의 특성을 정의하면, 합리성에 근거한 근대의 과학적 이성주의 미학은 시공간개념의 이행적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건축공간의 본질에 대한 현대의 존재론적 실존주의 미학은 장소개념의 실존적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미학적 공간인식에 따른 건축공간의 구조는 위요적 공간구조에서 위상적 공간구조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건축공간표현의 변화에 따른 건축공간개념은 결정론적, 심층적, 산일적, 그리고 인지적 공간개념으로 변화양상을 보였다.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초판, 미건사, 서울, 1997
2.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5th ed.,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1967
3. Abercrombie, Stanley, Architecture as Art : an Esthetic Analysis, 건축예술론, 최중현, 신형준 역, 초판, 세진사, 서울, 1988
4. Beardsley, Monroe C., Aesthetica, 미학, 이성훈, 안원혁 역, 초판, 이론과 실천, 서울, 1987
5.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 조형 역, 2판, 이화여대출판부, 서울, 1994
6. Kultermann, Udo, Kleine Geschichte der Kunsttheor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예술이론의 역사, 김문환 역,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1997
7. Kuma Kengo, 건축의 흐름, 이창우, 이영 편역, 초판, 현대건축사, 서울, 1998
8. Lang, Jon,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건축이론의 창조, 조철희, 김경준 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서울, 1991
9. Norberg-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4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4
10. Scruton, Roger, The Aesthetic Understanding, 미학의 이해, 김경호, 이강호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11. Tatariewicz, Wladyslaw, History of the Concept of Art : from A History of Six Ideas, 예술개념의 역사-테크네에서 아방가르드까지, 김체현 역, 초판, 열화당, 서울, 1986
12. Van de Ven, Cornelis,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8
13.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공간으로서의 건축, 최중현, 정영수 역, 2판, 세진사, 서울, 1990
14. 宮川英一, 建築的 空間, 문석창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6
15. 渡邊 護, 예술학, 이병용 역, 초판, 현대미학사, 서울, 1994
16. 杉本俊多, 건축의 현대사상, 최재석 역, 초판, 발언, 서울, 1998
17. 井上 允大, 建築美論, 임영매, 신태양 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서울, 1994
18. 이용재, 윤도근, 미의식 체계 변화에 따른 건축의 기제미 표현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109호, 1997.11
19. 이용재, 윤도근, 근대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4호, 1998.3

<집수: 1998. 7. 27>